승려복지 기본부담금 성공적 '첫발'

조계종 "제도 시행 첫 달 참여율 83%… 안정적 정착"

부담금 납부 완료율 80% 상회
본사 중 신흥사가 신청률 最高
추가 후원 · 20년납 사례도 눈길
"조계종 복지제도 안착에 도움"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올해 7월부터 본격 시행된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이하 기본부담금)' 이 성공적으로 정착되고 있다.

조계종 승려복지회(회장 금곡 · 총무원 총무부장)는 8월 25일 기자회견을 열고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참여의식 증대를 위해 시행한 '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 첫 달(7월) 83%라는 높은 참여율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기본부담금' 제도는 종단 승려복지의 수혜대상이 되는 모든 스님들이 기본적인 부담금을 의무적으로 납부하는 것으로, 지난해 2월 종단 지도자 포럼서 기본부담금 도입이 가장 먼저 언급됐다. 당시 포럼에서 해당 주제의 발제를 진행한 덕문 스님(화엄사 주지)은 "국가복지제도를 비롯해 이웃종교 등 대부분의 복지제도가 기본부담금을 기반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제도 운영을 위해서는 기본부담금 도입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이후 교구본사주지협의회 회의서도 기본부담금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으며, 지난해 11월 조계종 중앙종회 제217회 정기회에서 '승려복지법'을 개정하며 시행의 토대를 만들었다. 이에 따라 내년 7월부터 구족계 수계 5년 이하인 스님에게는 월 5천 원, 수계 6년 이상인 스님에게는 월 1만 원의 본인부담금을 부과할 수 있게 됐다.

올해 1월 조계종은 승려분한신고와 승려복지 본인기본부담금제도 시행 공고를 공시하고, 2월 1일부터 6월 20일까지 승려분한신고와 기본부담금 신청서를 함께 접수받았다.

이번 기본부담금 참여 결과는 분한신고와 함께 접수된 신청서 1차분을 정리한 것으로, 연장 접수 받은 2차분 집계가 이뤄지면 신청 인원이 추가될 것이라는 게 승려복지회의 설명이다.

승려복지회에 따르면 분한신고서를 제출한 스님 중 83%인 8225명이 신청을 완료했으며, 이 중 기본부담금 납부까지 완료한 스님은 총 8006명(80.68%)에 이른다. CMS 자동이체를 신청한 스님은 6700명이며, 직접 계좌이체를 신청한 스님은 2000여 명으로 총 8700명이 신청서를 접수한 것으로 집계됐다.

교구별로는 제3교구본사 신흥사가 신청률 95% · 7월 납부율 92%으로 가장 높은 것으로 집계됐다. 제4교구본사 월정사는 신청률 94% · 7월납부율 90%, 제13교구본사 쌍계사는 신청률 92% · 납부율 91%에 이르며, 재적 대중이 가장 많은 제12교구본사 해인사는 신청률 87% · 7월 납부율 85%, 제15교구본사 통도사는 신청률 82% · 7월 납부율 80%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승려복지회장 금곡 스님은 "이번 결과는 2차 분한신고와 기본부담금 신청서를 제외한 것으로, 해외 교구 스님들의 신청서가 도착하고 집계하려면 시간이 걸린다. 9월 중 신청서 집계를 완료할 것"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승려복지 수혜 대상 중 90%에 가까운 스님들이 기본부담금 제도에 동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승려복지회는 7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된 기본부담금 제도가 시행 첫 달만에 제도 참여율이 80%를 상회하는 것은 고무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

금곡 스님은 "제도의 성패는 참여와 동참에 있다. 시행 첫 달에 90% 가까운 참여율은 스님들이 종도로서 함께 책임지고 실천하는 승가공동체 정신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하며 "기본부담금 제도의 빠른 정착은 종도들이 평생 마음 놓고 수행과 포교, 봉사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기본부담금 제도의 시행으로 나타난 고무적 현상은 일선 스님들의 종단 승려복지제도에 대한 관심 증가다. 이미 제도 시행 전인 1월부터 기본부담금 입금자가 434명에 달한다. 기본부담금 이외에도 월 1~10만원을 추가로 후원하는 스님들도 있으며, 20년납(納) 분인 500만 원을 일시에 입금하고 추가로 260만원을 별도로 기탁한 사례도 나왔다.

향후, 기본부담금을 통해 확보된 기금으로 양질의 승려복지가 종도들에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게 승려복지회의 계획이다.

금곡 스님은 "일시적인 혜택보다는 장기적으로 기금을 조성해 후배 스님들에게도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우선 1인당 2000만 원의 의료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을 조성 · 활용할 계획이며, 열반 의례 지원도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법화종 종정, 일신상 이유로 사임

차기 서리 임명시 의사 밝혀
차기 총무원장 선거 기간 중
종정 추대절차 진행 가능성도

법화종 종정 도정 스님이 건강 악화 등 일신상 문제로 사임했다. 이에 따라 법화종은 올 초 前 총무원장 구속 이후 혼란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10월경 차기 총무원장 선출과 함께 종정 추대절차까지 진행해야 하는 중대한 과제를 안게 됐다.

복수의 종단 관계자에 따르면 종정 도정 스님은 최근 차기 서리에 지관 스님을 임명한 후 사임의사를 밝혔다. 한 종단 관계자는 "종정예하께서 8월 18일 지관 스님에게 차기 총무원장 서리 임명의사를 전하면서 종정 사임의사를 밝혔다"며 "공문 형태로 종도들에게 공표되진 않았지만 이후 원로의장 진파 스님에게도 종정 사임 의사를 전달하신 것으로 알고 있다. 사임 의사가 확고하신 만큼 변동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종정 스님의 사임 이유는 건강 악화 등 일신상의 문제로 알려지고 있다. 일각에서는 전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이 법원 결정에 의해 '자격없음'으로 직무정지된 후 종단 일각에서 종정 스님 책임론이 거론된 데다, 차기 서리 임명을 비롯한 종단 상황에 대한 복잡한 심경이 겹치면서 사임을 결정했다는 시각도 나온다.

종단 내부에서 종정 스님의 사임은 기정사실로 받아들여지고 있지만, 이에 대한 후속조치는 아직 공식적으로 논의되지 못한 것으로 확인됐다. 종정 스님이 사임에 앞서 총무원장 서리에 임명한 지관 스님에 대한 자격논란이 불거지면서 아직 종도들에게 정식으로 공표되지는 못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다만 중앙종회 의장 성운 스님은 "개인적으로 아직 공문을 확인하지는 못했지만 종단 내부적으로 사임 의사를 표하신 것은 기정사실화 된 만큼, 조만간 원로의회와 중앙종회 등 종단 주요관계자들이 모여 종정 예하 사임에 따른 후속절차를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며 "현 상황으로는 총무원장 선출절차와 동시에 차기 종정 추대절차가 진행될 가능성도 있다"고 설명했다.

법화종 종법상 '종정추대법'에 따르면 추대된 종정이 사퇴할 경우 다시 추대 절차를 밟아야 하며, 종정이 임기 중 사임하거나 기타 사유로 궐임(闕任)된 경우 2개월 이내에 후임을 추대해야 한다. 종정 추대위원회는 원로의원과 중앙종회의원, 총무원장, 포교원장 등 11인으로 구성되며, 현재 포교원장은 공석, 총무원장 서리는 자격논란이 제기되고 있어 대안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무엇보다 법화종이 올 10월 예정된 총무원장 선거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수 있는지 여부조차 불투명한 상황에서, 종정 추대라는 중대한 과제를 동시에 떠안게 됐다는 점에서 우려도 적지 않다. 올초 전총무원장 도성 스님이 배임수재로 구속된 후 전 총무원장 서리 진우 스님의 직무정지 사태 등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법화종은 여전히 종단 정상화에 난항을 겪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종정 스님의 갑작스런 사임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혼란은 더욱 가중되는 모양새다.

이런 가운데 중앙종회는 애초 8월 26일부터 차기 총무원장 선거절차 등을 안건으로 임시회를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이 같은 종단 상황을 고려해 8월 28일부터 10일간으로 일정을 변경했다.

차기 총무원장 선출과 관련, 늦어도 9월 초순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명단을 확정하고 총무원장 선거 절차를 공고한다는 방침이다.

송지희 기자 jh35@hyunbul.com

조계종 총무원 부장 · 국장 소폭 인사


성공 스님


덕조 스님


범종 스님


성주 스님


석명 스님

사회부장 성공 스님 임명
총무 · 감사국장 등 인사도

조계종 총무원장 원행 스님은 8월 26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4층 접견실에서 신임 부 · 국장과 특별보좌관에게 임명장을 전달했다.

신임 사회부장에는 성공 스님이 임명됐으며, 복지분야 특별보좌관에는 前 사회부장 덕조 스님이 이름을 올렸다. 총무국장에는 범종 스님이, 감사국장에는 성주 스님이, 호법부 상임감찰에는 석명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임명장 전달 직후 원행 스님은 "코로나19 확산으로 시국이 어려운 만큼 새로 소임을 맡게 된 스님들의 책무가 크다"면서 "교역직 선 · 후배 스님들과 화합해 종단 발전에 노력해달라"고 당부했다.

신임 사회부장 성공 스님은 "원장 스님을 잘 모시고, 선배 스님들과 화합해 종단 발전에 도움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신임 사회부장 성공 스님은 혜인 스님을 은사로 1990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총무원 호법부 상임감찰, 약천사, 운지사, 성전사 주지를 역임했다. 현재 진주 무애사 주지를 맡고 있다.

복지특보 덕조 스님은 혜인 스님을 은사로 1984년에 사미계를 수계했다. 제15 · 16대 중앙종회의원과 총무원 사회부장 등을 역임했으며, 제주 약천사 주지 소임을 맡고 있다.

총무국장 범종 스님은 근일 스님을 은사로 1997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다수의 총무원 교역직을 역임하고 현재 철원 안양사 주지를 맡고 있다.

감사국장 성주 스님은 종상 스님을 은사로 2001년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호법부 상임감찰을 역임했다.

상임감찰 석명 스님은 덕운 스님을 은사로 2000년에 사미계를 수계했으며, 현재 여주 반야사 주지를 맡고 있다.

신성민 기자

"묘적사 환경 피해 심각 종단·본사적 대응 필요"

묘적사 조사위 현장조사
조계종 환경위 대응 주문

남양주 묘적사 인근에 진행중인 '월문문화예술(융복합)단지 개발사업'으로 사찰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이 훼손될 수 있다는 현장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조계종 중앙종회 묘적사수행환경진상조사위원회(위원장 보인, 이하 진상조사위)는 8월 24일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분과회의실에서 제2차 회의를 열고 지난 8월 6일 회의 직후 이뤄진 현장 조사 결과를 공유했다.

이날 회의서 진상조사위는 "월문문화예술단지 조성사업이 진행될 경우 사찰 수행환경과 자연환경의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대규모 위락시설이 들어서면 묘적천과 월문천 등 인근 하천 피해도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진상조사위는 조계종 종단 환경 기구인 환경위원회를 소집해 적절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주문했다.

진상조사위는 "조계종 환경위원회에서 전문가 현장 실사를 진행해 사업이 진행됐을 경우 우려되는 환경 침해문제를 점검하고 교구본사, 묘적사와 함께 대응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면서 "인근 주민, 지역환경단체들과 연대해 지역주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하고 해당 사업으로 인한 지역 생활환경 피해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 참석한 묘적사 주지 환풍 스님은 "일부 언론의 왜곡보도에 대해 엄정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환풍 스님은 7월 20일 괴한 2명에게 폭행을 당해 얼굴과 허리 등을 다쳤다. 당시 사찰에서는 주차장 사용문제로 갈등을 빚던 인근 업체와 갈등으로 벌어진 일이라고 추정했다. 이에 중앙종회는 218차 임시회에서 묘적사 수행환경 침해를 진상조사하기 위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기도 했다.

환풍 스님은 "일부 언론의 보도는 사실을 심각히 왜곡했다"면서 "선임된 변호사와 함께 정정보도 요구 및 법적 대응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성민 기자

